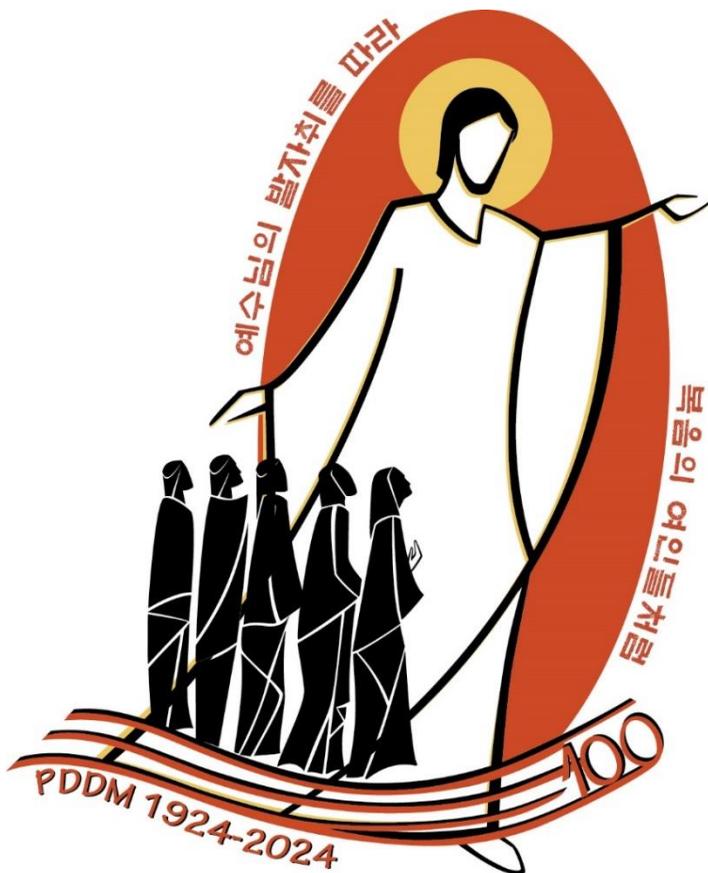


창립 희년을 위한 영적 여정



첫번째 단계

2022년 11월 21일-2024년 2월 10일

소개말

우리 수도회 창립 희년의 은총의 시기 (2022년 11월 21일 - 2024년 2월 10일)를 동반하고, 감사와 기억, 화해, 새로운 충실함과 사명의 기쁨을 키우는 영적 여정의 지침을 제안합니다.

이 여정은 모든 사람 곧 수녀님들, 초기 양성기의 젊은이들, 바오로 가족의 형제 자매들, 바오로인 협력자 스승 예수이벳들, 협력자들,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에 비추임 받아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복자 티모테오 자카르도와 가경자 마드레 스킴라스티카 리바타와 함께 걷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역사와 전례주년의 리듬에 따라 단계별로 짜여 있습니다.

I. 희년: 은총의 시기 2022년 11월 21일-2023년 2월 21일

II. 희년: 돌아옴과 용서의 시기

2023년 2월 22일 재의 수요일 - 4월 6일 성 목요일

III. 희년: 새로운 충실함, 신뢰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시기

2023년 4월 9일 부활대축일 - 8월 30일

IV. 희년: 새로운 인식의 시기

2023년 9월 1일 - 2024년 2월 10일

각 단계에는 성경 본문, 교회의 가르침, 카리스마적 기억 그리고 각 공동체와 지역구에서 나온 이니셔티브들과 영성적 감수성으로 거행해야 할 의미 있는 날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구의 영성분과는 연구 센터와의 대화를 통해 공동체가 자기 현실의 리듬에 따라 단계별로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미사와 기도 또는 속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상관없이 연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쓰시면 됩니다. centrostudiricerche@pddm.org.

여러분 모두 각 단계마다 희년의 상징적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노력하면서 창립 희년을 거행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지적인 지식이나 개념의 습득이 아니라 삶이 녹아있는 경험입니다.

이 여정에서 제안하는 희년의 상징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내적 자세를 갖추도록 서로 서로 도움시다. 이는 새로운 생명의 상징으로, 훗날 다음 세대들이 열매를 맛보고 수확할 수 있도록 창조주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돌봄으로 지켜냈다는 것을 나타내는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동이 새로운 삶을 생성하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알맞은 시간과 적합한 장소 그리고 언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선택합시다.

당신의 말씀과 생명의 빵으로 매일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느님의
신실하심으로 서로를 지탱해주며, 복음의 여인들처럼 스승 예수님
의 발자취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 함께 걸어 갑시다.

첫번째 단계

희년: 은총의 시간

2022 년 11 월 21 일 - 2023 년 2 월 21 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시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 61; 루카 4,18-19 참조).

지금은 여러분이 상상할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성소에 언제나 충실하기를 바랍니다.¹

이 자매들의 공동체는 초기 바오로 가족 안에서
흠숭과 봉사의 정신으로 성장하였다. (생명의 규칙 4).

¹ 레지나 체사라토 - 요셉 오베르토, 뿌리에서 본 나무 2, PDDM, 로마
2000 pro manuscripto, 45 쪽 (원본 40 쪽)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처럼, 과거는 감사의 마음으로, 현재는 열정으로, 미래는 희망으로 바라보며 은총의 특별한 해를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전례주년을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온교회와 함께 새로운 은총의 해를 시작하기 위해 있습니다.

1923년 11월 21일 알베리오네 사제는 첫 두 명의 자매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일을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은 생활 안에서 성체 조배에 헌신하고 사제직과 전례를 통한 사도직에 전념하며, 성체 신비안에 현존하여 계신 스승 예수께 완전히 속한 수도가족이 태어나기 위하여 저는 이미 1908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또 남들도 기도하게 하였습니다》.²

² APD 1946-47,21. 다른 언급도 같은 책 42. 50. 129.

내면화와 기도를 위한 유용한 본문³

성경 말씀

하느님과 당신 백성과의 계약의 필요성 가운데 희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1-2 ; 8-13 ; 23-24 ; 39-43)

¹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²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도 주님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⁸ 너희는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해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마흔아홉 해가 된다. ⁹ 그 일곱째 달 초 열흘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¹⁰ 너희는 이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¹¹ 이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 어서도 안 되며,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¹² 이 해는 희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³ 다음에 제안되는 성경 본문과 교회의 가르침은 희년의 넓은 의미를 상기시키므로 여정의 여러 단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해다. 너희는 밭에서 그냥 나는 것만을 먹어야 한다. ¹³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아야 한다.

²³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 ²⁴ 너희가 소유한 땅에
서는 어디서나 땅을 되사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³⁹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⁴⁰ 그가 품팔이꾼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며 희년이 될 때까지 너희 일을 하다가 ⁴¹ 자기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한다. ⁴²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 팔려서는 안 된다. ⁴³ 그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레위기 (27,24)

²⁴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의 본래 임자에게
돌아간다.



제 3 이사야는 예언적 소명의 의식으로 메시아를 구원, 용서, 자유, 완전한 번영을 도래하는 것을 선포하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61,1- 11)

¹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²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³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 풀린 냇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정의의 참나무” “당신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라 부르도록 하셨다. ⁴ 그들은 옛 폐허들을 복구하고 오랫동안 황폐한 곳들을 다시 일으키리라. 폐허가 된 도시들, 대대로 황폐한 곳들을 새로 세우리라.

⁵ 낫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의 양떼를 치고 이방인들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일 하리라. ⁶ 너희는 ‘주님의 사제들’이라 불리고 ‘우리 하느님의 시종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너희는 민족들의 재물을 향유하고 그들의 영화를 이어받으리라.

⁷ 그들은 수치를 갑절로 받았고 치욕과 수모가 그들의 몫이었기에 자기네 땅에서 재산을 갑절로 차지하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것이 되리라.

⁸ 나 주님은 올바름을 사랑하고 불의한 수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에게 성실히 보상해 주고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주리라. ⁹ 그들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그들의 자손은 겨레들 가운데에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 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¹⁰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로 단장하듯 그 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겹옷을 돌려 주셨기 때문이다.

¹¹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서는 끝나지 않을 희년을 시작하심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현존은 역사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가장 작은 이들에게 드러나는 호의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충실하게 당신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증거하도록 식별의 여정을 열어주십니다.

루카 복음 (4,14 - 32)

¹⁴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래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¹⁵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¹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자, ¹⁷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 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¹⁸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은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¹⁹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²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 하였다. ²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²²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하고 말하였다. ²³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²⁴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²⁵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²⁶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²⁷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 해졌다.”²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²⁹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 았다. 그 고을은 산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 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³⁰ 그러나 예수님께 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³¹ 예수님께서서는 갈릴 래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 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³²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의 교서 제삼천년기⁴

11.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구약에서 시작되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희년의 관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자렛 예수께서는 어느 날 자기 고향의 회당으로 돌아가 성서를 읽으시려고 일었습니다. (루카 4,16-30 참조). 그분께서는 이사야서를 들고 다음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묵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이사 61,1-2).

예언자는 메시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21).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언자가 앞서 말한, 메시아이며 오래 대망해 왔던 ‘시간’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날 ‘시간의 충만’이 도달한 것입니다. 모든 희년들은 이 ‘시간’을 가리키며, ‘성부께서 파견하신’ 분이신 성령께 ‘기름부음받은’ 이로 오신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과 관련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⁴ 1994년 11월 10일

빼앗긴 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마태 11,4-5; 루가 7,22 참조). 이렇게 그분께서는 ‘주님의 은총의 해’를 알리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해를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선포하십니다. 희년, ‘주님의 은총의 해’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지닌 특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희년은 단지 때마다 돌아오는 주년의 반복이 아닙니다.

12.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들은 이처럼 구약의 희년 전통 전체의 충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희년이 하느님께 특별한 양식으로 봉헌된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법에 따르면 이 희년은 매년 7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해는 ‘안식년’으로서 이기간 중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노예들이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하는 의무는 탈출기(23,10-11)와 레위기(25,1-28) 그리고 신명기(15,1-6)에 포함된 상세한 규정들로 규범화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들은 실제로 모든 성서적 법령 안에서 발견 됩니다. 이 법령은 참으로 특유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안식년에는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 이외에 그 법은 정교한 규정으로 모든 부채의 탕감을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식년과 관련된 일은 50년 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에는 안식년의 관행이 더욱더 확장되고 한층 더 성대하게 기념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는 바와 같습니다. “오십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레위 25,10). 희년의 가장 의미 심장한 귀결 중의 하나는 자유롭게 되어야 할 모든 주민들의 전적인 ‘해방’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인은 옛 선조의 땅을 만일 매각하였거나 노예로 전락함으로써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 기회에 다시 획득하였습니다. 그는 땅을 온전히 박탈당할 수 없습니다. 땅은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인들은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에집트의 노예생활에서 해방 시키심으로써 당신의 독점적 소유 자산으로 친히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3. 희년의 규정들은 대부분 이상으로서, 현실적 사실보다는 희망으로 머물렀습니다. 이 규정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실현 하실 진정한 자유를 예고하는 미래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들 안에 포함된 법률적 규범을 토대로 하여 일종의 사회교리가 나타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과 더불어 더욱더 명료하게 발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희년은 재산을 잃고 인격적 자유마저 상실한 가정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 평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희년은 부자들에게는 그들의 이스라엘인 노예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과 평등하게 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법으로 규정된 시기에 희년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통치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정의는 무엇보다도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작가가 말하듯이 임금은 이와 관련하여 탁월한 인물이 되어야합니다.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 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그가(임금이) 구원하나이다. 그는 약한 이와 불쌍한 이를 가엾이 여기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 나이다”(시편 72,12-14 참조). 이 전통의 기초들은 엄격히 신학적인 것이고, 특히 창조신학과 하느님의 섭리신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창조와 특히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드높은 주권’(DOMINIUM ALTUM)은 오로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속한 다는 것이 공통된 확신이었습니다. (레위 25,23 참조).

하느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인류에게 땅을 주셨다면, 그것은 인간 각자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세계의 풍요로움은 전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자산들은 정의로운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이바지 해야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자산들을 개인의 소유물로 소유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본연의 의미에서 유일한 소유자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하도록 위임받은 관리인,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희년은 이 사회정의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교회 가르침의 한

부분을 이루었던 사회교리, 각별히 회칙 <새로운 사태> 이래 지난 세기에 훌륭하게 발전된 교회의 사회교리는 이 희년 전통 위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14. 그러나 이사야가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라.”는 말로 표현한 그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희년은 정확히 이 ‘주님의 은총의 해’이며, 죄와 그에 따르는 벌을 사해 주는 용서 의 해, 상반된 집단 사이의 화해의 해, 다양한 회개와 성사적, 성사 외적 참회의 해입니다. 희년의 전통은 어느 다른 시기보다 대규모로 대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5. 개인들의 생활 속에서 희년들은 보통 탄생일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념일들, 즉 세례, 견진, 첫영성체, 신부 또는 주교 서품, 그리고 혼인성사의 주년 기념일들도 거행됩니다. 이러한 몇몇 기념일들은 세속 세계에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념일들에 종교적 성격을 부여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모든 희년 - ‘은경축’으로 알려진 혼인이나 사제서품의 25 주년, ‘금경축’으로 알려진 50 주년, ‘다이아몬드 경축’으로 알려진 60 주년-은 이러저러한 성사를 받은 개인에게는 특별한 은총의 해입니다. 우리가 희년과 연관지어 개인 들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공동체나 단체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을이나 도시의 설립 백년제나 천년제를 거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본당이나 교구의 희년들을 경축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 모든 희년들은 개인이나 공동체들의 생활에서 의미심장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6. ‘희년’이라는 말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단지 내적 기쁨 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드러나는 환희입니다. 하느님의 오심은 성 요한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외적이고 가시적이며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1 요한 1,1 참조). 이 오심에 따르는 기쁨의 모든 표지는 나름대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구원을 기뻐하고 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기뻐하도록 초대하고 만인이 구원의 힘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 합니다.

17. 교회 역사 안에서 모든 희년은 하느님의 섭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지니고 우리는 오늘날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감사의 정과 함께 책임감을 지니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매우 특별하게,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적 사건들에 대한 하느님의 개입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색하면서 우리 자신의 세기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31. 말씀과 성사로써 그리스도 신앙을 끊임없이 밝혀 보이면서, 이 특별한 주년 축제에서도 사건의 기념을 상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성사의 거행을 통하여 그 사건의 구원적 의미를 현존하게 함으로써 기념의 구조를 거행의 구조와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희년 거행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확인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그들의 희망을 떠받쳐주며, 그들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안에서 그들의 사랑을 다시 불타 오르게 할 것입니다.

32. 하나의 희년은 언제나 특별한 은총의 기회, ‘주님께 복을 받은 날’입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희년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희년에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에는 역사의 모든 세대와 모든 시기에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저 수많은 모든 남녀의 삶 속에서 성숙해 온 성덕의 열매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희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에 기초한 기쁨, 회개의 기쁨입니다. 개인 이든 공동체든, 회개는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33. 과거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정직하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도록 우리를 각성시키고 이를 극복하도록 준비 시키는 것입니다.

41.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구원의 신비를 성사적으로 현존케 하는 투신은 이 해에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인 세례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갈라 3.27).

42. 모든 것이 희년의 첫째 목표인 신앙의 강화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 심화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열렬히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웃 사람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대의 맥락 안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성덕에 대한 참된 갈망을, 회개와 인격적 쇄신에 대한 깊은 열망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45. 따라서 희년 준비의 일차적 과업은 성령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포함합니다. 성령께서는 성사들 특히 견진성사에서 그리고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불러넣어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역할과 직무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오로지 한 분이신 성령께서는 당신의 풍요하심과 직무상 필요에 따라 교회에 유익하도록 여러가지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1 코린 12,1-11 참조).

50.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정’에 있다는 인식으로 모든 이가 인간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굳게 매달려 진정한 회개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소극적’ 측면, 그리고 자연법에서 표현되고 복음으로 확인되고 심화된 윤리적 가치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선을 선택하는 ‘적극적’ 측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의미에서, 고해성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욱 강도높은 거행을 위한 본연의 맥락입니다.

56. “교회는 결코 현세적 야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 자신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려는 것 한가지뿐입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구원하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러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하려는 것뿐입니다.”

58. 세계와 교회의 미래는 젊은 세대, 금세기에 태어나서 다음 세기, 새로운 천년기의 성숙하게 될 저들에게 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질문했던 젊은이에게 그러하셨듯이 젊은이들에게서 커다란 것을 기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마태 19,16) 젊은이들은 어떤 상황이거나,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나 그리스도께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질문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분을 찾기를 계속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길을 성공 적으로 따른다면, 다음 세기와 그 후에 올 세기들, 그리고 시간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현존에 자신들이 기여했다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59.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성령을 통하여 사람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셨음을 교회는 믿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인류 역사 전체의 열쇠와 중심과 목적이 스승이신 주님 안에서 발견됨을 믿습니다. 교회는 또한 이 모든 변천 속에도 불변의 것이 많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그 불변의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또 영원히 존재 하실 것을 믿습니다.》(사목헌장 10 항)

카리스마 원문

주님과 맺은 계약⁵

어제 저녁, 존경하올 신부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계약을 맺도록 초대하셨다. 그 분이 하신 계약은 하나를 공부하고 넷을 배운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 묵상 중에, 그 분은 우리에게 이 계약의 중요성과 기초, 조건 그리고 초대를 되풀이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확신으로 가득차 설득력이 있었다. 계약의 근본 정신은 ‘당신께 지혜를 청하는 이에게 그것을 주시겠 다고 말씀하신 하느님께 신뢰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와 아르스의 본당 신부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예를 들어주셨다.

하느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기뻐하신다. 이 집이 변창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다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세상에는 신뢰가 부족하고, 존경하올 아버지는 아직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 신뢰를 찾지 못하셨다....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것과 모든 이를 신뢰하는 우리는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며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⁵ 티모테오 자카르도의 일기 1913-1925, 1942-1946. Pagine scelte, Ed. Centro di spiritualità paolina, Roma 1996, p. 250.

아주 긴 연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배우는 첫째 방법은 바로 이것이고, 우리는 이 방법으로 모든 학생들을 도전시킨다....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15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학교에서 돌아 온 사람은 신학교에 대한 사고방식, 즉 공부한 만큼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집에서 오는 사람은 가정에서 지니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계약은 중요한 것이므로 진지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다. 금으로 신발에 쓰는 못을 만드는 것과 같다. 계약은 매우 뒤쳐진 공부를 향상시켜 줄 것이며, 이렇게하면 진보하게 될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분명 그렇다. 하느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시도하고 실천하자. 우리는 그렇다고 믿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하느님께 신뢰하고, 시간을 잘 사용할 것. 한 시간으로 네 시간의 효과를 거두리라고 믿는 깊은 확신을 지닌 사람이 계약을 하라.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계약을 맺지 말 것이며, 수도회에서 공부도 하지 못한다.
2. 공부를 위해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잘 활용할 것.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잘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3. 우리가 배운 것을 오로지 선한 출판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할 것. 희생과 보잘것없는 결실을 무릅쓰고 약속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만약 이 세가지 조건을 진지하게 지키지 못하겠거든 아예 계약을 맺지 마라. 그러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말 것이다. 그 분은 자신이 이미 계약을 맺고 경험하였기에 이 계약을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맺도록 초대하셨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주셨다. 하느님은 충실하실 것이다. 우리 편에서 그 어떠한 조건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자. 거룩한 미사에서 결심 뒤에 각 조건에 따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호칭 기도와 « 창조주여 임하소서 » 그리고 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 3 번을 바쳐야 한다.

«성모송»을 바치기 전에 존경하올 신부님은 계약의 기도를 소리 내어 읽으셨고, 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따라하였다. 지혜는 하느님에게서 온다. 하느님은 동방박사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랜 세월 연구한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한 순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 분은 시간과 책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신뢰가 필요하다. 하느님의 지혜는 올바르고 참되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잘 이루셨다. 하느님의 지혜는 칸트, 카르두치, 루소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우리 신부님이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실 때, 자신의 전 존재로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은 문장의 조합이 아닌 온전히 열의로 불타오르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말이었고 마음이 일러 주는 때에 말씀하셨기에 설득력이 있었다.

내부 회람, 천상 스승님에서 1948 년 2 월, 제 8 호

한 성인의 마지막 미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이상으로, 하느님은 경건한 제자들이 그들 고유의 삶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안정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양육자’ ‘보호자’를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아버지는 프리모 마에스트로셨고, 그 분 곁에는 아주 충실한 협력자이자 대변자이신 시놀 마에스트로 티모테오 M. 자카르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지니고 다니셨던 개인 수첩에는 창립자 신부님께서 쓰셔서 주신 메모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이 메모를 파견의 명령으로 여기며 거룩히 간직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경건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은 잘 한 일입니다. 저는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내가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성실한 아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하는 나의 원칙들을 그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1 코린 4,17)

시놀 마에스트로의 모습은 성 요한 복음사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와 같이 순결하고 순수하며 숭고한 동정성. 그는 우리를 타볼산, 다락방, 갈바리오, 파트모스의 사랑과 고통 가득한 친밀함으로 이끄십니다. 때때로 그의 독수리와 같은 비행은

숭고한 높이에 도달하여 신성한 태양과 초자연적인 모든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변화시키는 빛에 잠기기까지 합니다... 대담한 비행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참새들인 우리는 그를 따르고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마에스트로 자카르도의 삶과 직무를 통해 우리 아버지이신 성 바오로가 우리 가운데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시놀 마에스트로는 경건한 제자들을 위해 천상 스승님의 바로 그 마음에서 은총을 길어낸 후, 특히 다음과 같은 자세로 사도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에페 3,8). 매우 겸손하시고, 매우 경건하며, 참으로 아버지 같으시고 우리 영혼의 선을 열렬히 사랑하신 아주 열심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 이십니다.”(필립 1,8).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완전한 법적 설립을 위해 어떤 댓가를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분은 아주 순수한 희생 제물로 생명을 온전히 바쳐 “끝까지” 우리를 사랑 하셨습니다. 만약 천상 스승님께서 경건한 제자들의 성소를 완성시키기 위해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이 희생은 고귀한 것이며 경건한 제자의 성소와 삶은 매우 숭고할 것입니다! 스승의 지혜와 아버지의 선하 심 그리고

어머니의 부드러움과 헌신으로 우리 가족의 변천을 동반 하셨습니다. 우리 수도회가 생명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봉헌이 있었는지요!

1948년 1월 12일

교황 비오 12세는 이날 천상의 빛에 비추임 받아 오류가 없는 권위를 갖추시고,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승인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수도회성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 부서) 장관 추기경의 방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놀 마에스트로는 영혼과 육체에 보기도문 통증을 겪으며 심하게 고통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힘이 다하셨지만, 그날 아침에는 아직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우기시며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성바오로수도회 총원의 성당으로 천천히 내려가셔서 꺼져가는 목소리와 소진한 몸으로 하느님의 제단 앞에서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선택한 이들의 젊음을 기뻐하시며 영원하게 하시고, 그의 희생 제물을 당신 천상 아드님의 희생 제물에 합하여 주셨습니다. 아주 힘들게 미사의 마지막에 도달하셨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마지막 비상이요, 사랑받는 제자의 일치이며, 복된 영원에 대한 열망 또한 지닌 거룩한 사제, 성바오로 수도회의 첫 번째 사제는 이제 더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어 마지막 미사를 드리며 제단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

광을 보니...” 같은 날 아침,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부터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가 교황청 설립 수도회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시놀 마에스트로는 고통의 침상에서 감격과 전율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온전한 영적인 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은 이미 벽차 오른 감정에 천국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의 ‘시메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영광의 왕관과 같은 상급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의 현존과 그의 직무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심오한 의도는 달랐습니다. 또 다른 제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그 하늘의 보화....

이제 우리는 저 높은 곳, 영광 중에,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원에서 완성되는 성체의 찬미를 끊임없이 봉헌하며 그를 생각합니다. 이 성체는 여전히, 더욱 더 우리를 위한 생명의 희생입니다. 어느날 우리도 하느님의 어린 양 앞에서 경건한 제자로서의 우리 성소를 영원히 계속하기 위해 하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봉헌하신 거룩한 사제가 가르쳐 주신대로 ‘가치 있는’ 길을 걸읍시다!

시놀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 로마에서 1 월 27 일 경건한 제자들에게 하신
묵상입니다

성인들이 이 지상에서 떠나가심과 같이 그도 이 지상을 떠났습니다.
이 선택받은 영혼을 통해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다.

그분은 겸손의 제비꽃이었고, 그분의 전 생애는 매우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섬세한 한송이 순결의 백합이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이렇게 알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세속의 사람 들도 그에
의해 감화를 받았고, 저에게 그의 독특한 섬세함이 드러나는
특징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한송이 사랑의 장미 였습니다.
거룩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천상 스승님께 대한 그의 신심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특히 지난 8 월의 연피정때 그와 가장 많이 접 할
수 있었던 우리는 그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 처럼
높은 곳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향상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기도와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저에게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잠든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수도회 에 베 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자 수녀 들을 위해
하신 모든 선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에게 많은 빛을

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분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고 각인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이상, 그의 신심, 그의 삶을 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 저에게 좋은 경건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십시오, 천상 스승님께 대한 신심으로 기도를 계속하면서, 참된 결심에 충실하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가운데 그분을 따르십시오. 모든 곳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과 신심을 쏟아 부으며, 항상 건설적이고 선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여기 온순한 아들, 에우카리스티아에 진정으로 신심 깊은 이가 있습니다! 성바오로가 아주 젊은 티모테오를 만나 알게 된 것처럼 저도 12세 소년인 그를 처음으로 만나 알게 되었고, 동시에 영혼의 위대한 섬세함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드문 일이었지만, 저는 그에게 성체를 자주 모시도록 권유하였고, 후에는 매일 참여할 것을 허락하고 권고하였습니다. 아침 삼종기도 종소리 후에 성당 문을 열면 정확한 시각에 문 앞에 와있는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천상 스승님은 그를 교육하셨고 마음으로 그를 형성하셨습니다.

경건한 제자들이여, 그를 잘 따르십시오! 아주 작은 부분, 뉘앙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그의 말을 듣고 지키십시오. 그 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닌 천상 스승님이십니다. 여러

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지침은 모두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보다 앞서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미 저의 허락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경건한 제자들이여, 그의 영혼과 그의 영은 우리 안에 살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는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소중한 영혼을 잃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충격을 받았고 더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여러분이 행하는 성체조배, 성체, 사제, 전례 사도직에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 분이 경건한 제자들의 현존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것에 대해 형벌과도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의 마지막 미사는 여러분의 교황청 승인 날짜인 지난 12 일에 거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그 분의 정신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 1909년부터 1914년까지 천상 섭리가 바오로가족을 준비할 때, 그 분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직감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매우 신심 깊었던 거룩한 에우카리 스티아로부터 받은 빛, 그의 열렬한 성모 신심, 그리고 읽은 것뿐만 아니라 묵상한 교황님의 서한들은 그에게 교회의 모든 필요와 선을 행하는 현대적 수단들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1917년에 성바오로수도회를 형성할 목적으로 모인 첫 번째 어린이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향구하게 시놀 마에스트로로 존재한 그를 사람들은

안팎에서 시놀 마에스트로라 불렀고 사랑하고 경청했으며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모든 것을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충고 하시고, 비추임 받은 따뜻한 기도로 모든 것을 건설하시는 스승 이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그의 영혼은 모든 이와 통교하였고 항상 모든 이에 게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끝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셨으며, 매우 민감하시고, 참으로 온화하셨으며, 아 주 섬세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영혼들 에게 글을 쓰셨고, 영적, 사 회적, 경제적 관계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사제들, 수사들, 바오로딸들, 제자들, 빠스토렐레의 마음속에 자신 을 온전히 쏟아 부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에스트로

티모테오 신부님은 시놀 마에스트로라고 불리웠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시놀 마에스트로였습니다.

주님을 잘 대표하셨습니다. 그분은 제단, 고해소, 설교대에서 그리고 대화 중에, 학교에서, 오락시간에, 관계성에서, 잘 완수한 모든 소임과 그의 개인 생활에서 항상 주님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그분 은 또 다른 그리스도 이셨습니다.

... 스승이셨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위대한 정신을 가지셨습니다. 책, 기사, 설교 그리고 필요에 따라 모든 과목을 조

금씩 가르치셨습니다. 대단히 앞서 계셨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차원이 조금 높았을 지라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고, 항상 경청 하셨습니다.

모든 덕의 스승

그에 대한 신학교 장상들의 첫 평가부터 그의 삶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자카르도에 대해서는 기록할 사항이 없다. 모든 것을 잘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혼들의 선을 위한 것 앞에서 그의 겸손, 그의 애덕, 인내심, 끈기, 부드러운 확고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심의 스승

하느님과 대화할 줄 아셨습니다! 특히 그 분은 성체 신심, 성모 신심, 전례적 신심, 교회와 교황님께 대한 사랑, 형제들과 모든 이를 향한 부드럽고 활동적인 애덕, 언제나 고양된 생각과 열망, 완전한 수도적 규칙의 삶을 준수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무덤까지 세례 때의 은총을 그대로 가지고 가신 한 영혼, 동정자, 성인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그는 오직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셨

습니다. 즉 ‘애덕 안에서 살자! 이렇게해야 수도생활의 감미로움과 만족 그리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의 말, 그의 가르침, 그의 고해소, 강단, 펜, 오락 그리고 작은 것들까지도 그의 마음에 가득한 풍요로운 신심과 애덕을 반영 합니다. 그는 ‘성바오로수도회의 영성, 우리 존재와 활동의 중심은 성찬의 신비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의 천상 스승님, 특별히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심입니다. 생명의 기초, 원천, 방법 그리고 왕관.’ 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는 이 원칙을 사셨습니다. 바오로인의 모든 이상을 전인적으로 육화한 사람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시놀 마에스트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도직의 스승

그분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으로 약한 이들을 지탱해주시고 복음적 의미에서 빛과 소금이셨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도직 을 느끼고 사랑하며 발전시키셨습니다. 바오로 가족안에서 심장, 영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그 분께 엄청난 덕을 입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분께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 또한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그는 항상 대리자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저 자신보다 그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존경하는 장상들 앞에서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결론

.... 그를 닮으십시오

제가 그를 알게 된 날과 그에게 아침에 지평선에 수줍게 나타나 오후까지 떠올라 모든 것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태양과도 같은 감실에서 나오는 빛, 위안, 구원에 대해 알려준 후부터 그의 삶은 지속적으로 매일 높이 향상되었습니다. 오! 그는 성바오로와 함께 이렇 게 말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

스승 예수의 제자수녀들에게 하신 설교⁶

숨은 생활 안에서 성체 조배에 헌신하고 사제직과 전례를 통한 사도직에 전념하며, 성체 신비안에 현존하여 계신 스승 예수께 완전히 속한 수도가족이 태어나기 위하여 저는 이미 1908 년부터

⁶ 경건한 제자들에게 하신 창립자 신부님의 설교 중 특별히 의미있는 3 년에서 발췌하고자 하였습니다.

1946-47, 교구 승인을 준비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우리의 진정한 삶과 사도직에 대한 첫 번째 인정이 있다.

1957, 성령에서 파견된 사람의 방문후 총회를 동반하였다.

1963, 수도회 분원과 회원수가 최대로 확장된 특별한 성화의 해이다.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또 남들도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수도회가 은총의 샘이 되어 특별히 사도적 생활에 종사하는 다른 수도가족들이 거기서 은혜를 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수도가족의 생활 방식과 창립하려는 다른 수도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 갔습니다....

언제나 저를 인도해 주신 영적 지도신부님⁷의 말씀에 저를 맡겼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그룹을 확보하십시오. 그 일이 생명력을 갖기를 바라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뿌리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줄기, 가지, 꽃, 잎사귀, 열매를 키우는 근본적이고 생명력 있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실 안에 물리적으로 현존하십니다. 미사, 실재적 현존, 영성체로써 교회와 사람들 마음에 온갖 선이 스며듭니다. 이는 성사와 준성사를 통해 솟아나고 흘러넘치는 생명의 샘물이며 수액입니다. 사람은 이 원천에, 예수님과의 일치에 도달해야 하며, 그 밖에 다른 것은 수단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성체적 마음으로 거룩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천상 스승 예수께 모든 것을 청해야 합니다.

⁷ 프란치스코 키에사 신부 (1874-1946)

이것이 감실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 성체이신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등불,
 - 예수님과 함께 희생 제물,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사도직에 속합니다.
 - 감실과 그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영예로운 종’.
 - 받아서 나누어주는 성체의 ‘천사’.
 - 성찬의 빵과 그 은총의 물에 ‘끓주리고 목마른 사람’.
 - 성체 안에 계신 신랑과 함께 원의, 목표, 모든 사람, 특히 그분 마음에 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인 사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나누는 ‘마음’.
 - 마리아처럼 여러분 마음(루카 2,51 참조) 안에 성체이신 예수님의 모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목상하는 ‘예수님의 절친한 벗’.
- 천상 스승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애정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여러분에게 성소의 기쁨을 불어 넣어 주시고, 여러분 안에 당신의 충만한 성덕으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 약속에 끝까지 충실 하십니다.⁸

⁸ APD 1946-47, 21-31

1908년에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해 어느 날, 저는 신학생들에게 교회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세계의 수도자 현황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구원과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은총 없이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지 1900년이 지난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구상에는 대략 20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0억 20만명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4억명은 이교도들과 교회의 갈라진 형제들입니다. 곧, 가톨릭 교회 밖의 사람들,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성사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신앙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갈라진 사람들입니다. 이는 믿음과 순명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몇백만명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라고 말하는 그들 모두가 진정한 신자들입니까? 가톨릭 국가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최근 선거 결과, 교회의 반대자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은 신학생들이 일어나 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기도하십시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승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류가 받아들이고, 경청하며, 사랑하도록 기도에 전념하는 수도가족이 교회 안에 설립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제 생각과 마음 안에 여러분의 수도가족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사도직은 그 어느 것도 능가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도직입니다.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마귀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가치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위장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모님의 직무를 수행하십시오. 또 감실의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의 순결한 손을 들어 성체이신 예수님과 일치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소를 경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이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사도직은 고귀하므로, 이를 침묵 안에서 수행하십시오.

저는 1908 년부터 여러분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지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도직을 위해 생명을 봉헌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도직은 본질적 인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여러분의 사도직을 맹렬하게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원죄없으신 우리의 어머니께 숨어드십시오. 그런 다음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흠숭을 드리십시오!⁹

⁹ APD 1946-47, 42-50

생명의 규칙

1.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1884-1971)는 성녀 스콜라스티카 기념일(1924.2.10)에 이탈리아 알바에서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를 시작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르솔라 리바타(1897-1987)를 그의 협력자로 선택하여 “제자”라는 의미의 스콜라스티카라는 이름을 주었으며, 그에게 자매들의 첫 공동체를 맡겼다.

2.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그리스도교의 신심이 굳고 근면하게 노동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일곱 살 때에 자신을 부르시는 “빛을 받았음”을 느끼고 “저는 사제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그의 모든 “공부·신심·생각·태도 심지어 놀이까지도” 그리로 방향 지어졌다.

사제서품을 받은 후에 그는 성체흡송 사제회에 가입하였으며 알바 신학교에서 사제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와 교회의 쇄신 운동에도 관심을 가졌다.

3.

두 세기가 갈리는 밤(1900-1901)에 신학생이었던 야고보 알베리오네가 한 성체 신비의 체험은 “바로 가족이 태어나고 살아갈 특수한 사명과 고유한 정신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하신 복음 말씀의 초대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와 삶을 같이 할 새로운 세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길 · 진리 · 생명이신 스승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일치시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켜야 할 의무를 느꼈다.

하느님의 때가 이르자 알베리오네 신부는 복음화를 위하여 커뮤니케이션계의 미개척 분야에서 일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확신하고 출판 사도직에 전념하였다. 시대의 징후를 헤아릴 줄 알았던 그는 카리스마의 다양성과 상호 보완을 위하여 교회의 삶과 사명에 여성을 참여시켰다.

세계의 종교적 현실을 통찰한 그는 1908 년부터 “성체의 신비로 현존하시는 천상 스승 예수께 온전히 속한” 수도가족이 탄생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하였다. 우리 수도회는 인류가 구원 자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경청하고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그에 봉사함으로써 창립자의 카리스마적 체험을 상기시키는 표지가 된다.

4.

성령의 인도와 영적 지도자 프란치스코 키에사 신부(1874-1946)의 동의를 받은 창립자는 하느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데

이바지할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처음으로 젊은 여성들을 천상 스승님의 집에 불러 모으고, 마드레 스콜라스티카의 협력을 받아 그들을 양성하였다.

이 자매들의 공동체는 초기 바오로 가족 안에서 흠숭과 봉사의 정신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기쁨과 침묵, 일상화된 잠실에서 비롯한 영웅적 믿음과 근면한 노동, 상호 우애를 특징으로 한다.

이 같은 생활 양식은 베타니아 기도의 원천이 된 복음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우리 수도회의 창립은 십자가의 봉인을 수반하는 사건들이 거듭 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숙해졌다.

처음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바오로 딸 수도회와 “구별 되는 독립된” 공동체로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를 설립하였으나, 그들은 교회법상 하나로 통합되어 승인받게 되었다.

창립자와 마드레 스콜라스티카의 관여, 그리고 생명을 바친 티모테오 자카르도 신부(1896-1948)의 희생은 교회가 우리 수도회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승인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1947년 4월 3일 성목요일에 교구승인 교령이 반포되었다.

우리 카리스마는 1948 년 1 월 12 일 성좌의 첫 승인을 받고, 1960 년 8 월 30 일에 성좌 최종승인을 받음으로써 카리스마의 보편성과 사도적 효력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시복으로 표출된 교회의 인정은 우리의 성소를 확인시켜주었다.

6.

우리는 “길 · 진리 ·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인류의 발전이 이룩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오늘의 인류에게 그분을 전한다”는 바오로 가족의 공동계획에 동참한다.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우리 수도회는 “성화와 사도직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포도나무에 수액을 공급하는 뿌리의 역할을 한다.”

7.

스승 예수께 사로잡힌 우리는 파스카의 신비 안에서 그분을 관상하고 따른다. 그분께서는 전례 주년의 역동성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 모습을 갖추시며 당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변화시키신다.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는 스승 예수님의 학교에 우리를 인도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선포해야 하시는지를 가르치신다.

사도요 신비가인 성 바오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할 때까지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8.

우리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신비 안에서 우리의 고유 사명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현존하시는 주님을 맞아들이고 경청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룬다.

또한 교회의 모상이신 마리아처럼 성령께 순종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기까지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고 이를 실천한다.

9.

우리는 길·진리·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는다.

부활하신 분, 곧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움 자체이신 분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복음의 여인들처럼 우리는 그분을 선포하고 찬미하며 섬기도록 사도들과 함께 파견된 여사도들이다.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사도직은 성체 · 사제직 · 전례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신 사도 바오로의 정신 안에서 우리가 사는 다양한 민족의 가치와 전통을 식별하여 받아들이며, 복음의 새로움을 선포하기 위하여 교회의 일치와 종교 간 대화에 힘쓴다.

11.

우리의 주님이요 스승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느님께 끝없는 감사를 드린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살아 계시는 성령의 목소리는 바오로 가족이 대대로 이어온 알베리오네 신부의 카리스마에 우리가 일치하게 한다. “모든 것은 우리를 마니피캣의 정신으로 이끈다!”.

12.

우리는 창립자가 살았던 그리스도화의 여정을 산다. 창립자는 길 · 진리 ·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안에서 참 하느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사도로 점차 변화할 수 있게 자신을 내 맡겼다.

“모두 나에게 오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울려 퍼진다.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하고 세상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성찬례를 통해 새롭게 한다.

우리는 하느님 얼굴을 찾으면서 우리보다 먼저 성소를 모범적으로 살았던 형제, 자매들을 본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긴다.

우리는 영적·사도적 여정의 시련 속에서도 “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 여기서 비추리라. 너희 죄를 뉘우치라.”하신 성체 안의 스승 예수님의 약속에서 힘을 받아 항구하게 나아간다.

13.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는 자유롭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분께 응답을 드린다. 또한 우리를 성부께 인도하는 새롭고 생명력 있는 ‘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 그리스도께 충만히 동화 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삶을 산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뜻깊은 날들

1923 년 11 월 21 일: 바오로가족 안에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 오르솔라 리바타 와 메틸데 제를로또를 따로 떼어 놓다.¹⁰

1971 년 11 월 26 일: 창립자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로마에서 선종하다.

1936 년 11 월 29 일: 마드레 스콜라스티카께서 마리아 엘리아 페레로 수녀님과 함께 이집트에¹¹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나폴리 항구에서 떠나 **12 월 2 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다.

2013 년 12 월 9 일: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마드레 스콜라 스티카를 가경자로 반포하다.

1948 년 1 월 12 일: 성좌의 첫 승인을 받다.¹²

¹⁰ 참조. 뿌리에서 본 나무, 38-39 쪽

¹¹ 참조. 뿌리에서 본 나무, 109-112 쪽

¹² 참조. 뿌리에서 본 나무, 239 쪽 이하

1948 년 1 월 24 일: 창립자의 충실한 사람 중에 가장 충실한 복자 티모테오 자카르도 선종하다.¹³

1924 년 2 월 10 일:¹⁴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녀 스콜라스티카 기념일에 알바에서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를 시작하다.

¹³ 천상 스승, 8 호, 1948 년 2 월 PDDM 총원 문서고, 부록에 있는 텍스트 중에서.

¹⁴ 1947 년 2 월 10 일 목상 중(APD 1946-47, 129), 교구 설립 전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1908 년부터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총, 특별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기였던 1919 년, 1923 년, 1924 년, 1947 년 에 받은 은총에 대해 오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항상 첫째 의무입니다. »

**CONGREGAZIONE DELLE
PIE DISCEPOLE DEL DIVIN MAESTRO**
Casa Generalizia – Via Gabriele Rossetti, 17 – 00152 – Roma

<http://pddm.org>